

忠孝의 고장 後孫들이 脈 잇는다

효자효부상 수상자 가정 효행의 집 표찰 달아줘



포천시는 '효행의 집' 표찰 게시로 잊혀져 가는 효 의식 고취와 효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만고불변의 가르침이자 사람됨의 도리인 효의 실천을 널리 알리고 있다

여로부터 충효의 고장인 포천시는 전국 최고의 으뜸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어버이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여 효자·효부상을 수상한 112명에 대하여 '효행의 집' 표찰을 제작하여 해당 읍·면·동장과 지역유지 등이 함께 수상자의 집을 방문해 표찰을 달아주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효행의 집' 표찰 게시는 잊혀져 가는 효 의식 고취와 효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만고불변의 가르침이자 사람됨의 도리인 효의 실천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등 인물을 저버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유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표찰을 게시함으로써 우리의 오랜 전통으로 모든 행실의 근본이고 윤리도덕의 척도로 여겨져 온 효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표찰 게시 가정에서는 뿌듯하며 표찰 게시를 자랑스러워 했고 이웃주민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심동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 모씨는 "자녀에게 표찰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씩씩하기는 했지만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효자·효부를 발굴하여 격려하는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65@paran.com

인터뷰

한희준 포천신문 골프회 고문

골프입문 24년만에 홀인원

포천신문골프회 한희준(55·사진)고문이 8월23일 아도니스 컨트리클럽에서 실시한 정기라운딩에서 홀인원을 했다.

이날 경기에서 한 고문은 아도니스 컨트리클럽 중코스 8번 파8홀에서 8번 아이언으로 타이틀리스트 3번 공으로 홀인원을 한 것. 1984년5월 골프로 첫 입문한 이후 처음으로 홀인원을 하게 된 한 고문은 "공을 치는 순간 완벽한 느낌으로 버디를 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공중으로 날아간 볼은 클럽 전방 4~5m에 떨어져 굴러서 홀 컵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게

동반자들의 설명이다. 홀인원이 확인되자 한 고문은 큰절을 하며 소원을 빌기도 했다.

한 고문은 홀인원 소감에 대해 "주변에서 홀인원을 한 CEO 들은 모두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며 "내가 하는 사업도 번창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고문은 포천시 설운동에서 한신단열을 경영하고 연속 2년 모범납세자상을 수상한 성실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으며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초대위원장, 포천신문 골프회 초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한 고문은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주부명예기자단, 조사위원회 소속 위원들중 골프로운동을 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2006년 처음으로 조직한 포천신문골프회 초대 회장으로서 해외골프연수 등 사업을 통해 골프회의 조직을 탄탄하게 구축하기도 했다.

또한, 한 고문이 운영하는 한신단열은 1977년 마장동에서 설립하여 1980년에 포천시 설운동으로 이전해 폴리에틸렌 발포폼을 생산해 포장과김 종류와 건축보온재로 납품하고 있으며 거래처의 증가로 매출액이 늘어 날 전망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골프회 8월 정기라운딩

골프회 창립 후, 첫 홀인원 탄생



골프회 8월 우승자 양종진(우)과 박노현 회장

포천신문 골프회(회장 박노현)는 8월23일 아도니스 컨트리클럽에서 8월 정기라운딩을 갖고 회원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포천신문 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정기라운딩은 장마철에도 모처럼 활짝 개인 날씨에 6개팀 24명이 참석해 개최됐으며 홀인원 등 다양한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제17차 월례회의에서 박노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한

희준 고문이 홀인원을 해 3년 동안은 걱정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며 "우리 회원들도 덕분에 1년반은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게 되어 고맙다"며 한희준 고문에게 소감을 물었다.

한희준 고문은 "골프입문 24년만에 포천신문 골프회에서 홀인원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내가 하고 싶은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포천신문도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호열 상임고문은 "포천신문 골프회 창립이후 처음으로 홀인원을 하신 한희준 고문님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제2,3회 홀인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참석하신 회원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골프에 대해 회장단에게 일정과 장소 등을 일임하기로 의결하고 시기는 1월중순경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 이찬우 회원▶우승 양종진 회원▶준우승 최호열 상임고문▶장타상 최두열 회원▶근접상 안병호 회원▶행운상 김정선 회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②4 개개비 [great leed warbler]

“초여름 갈대숲의 음악가”

개개비 개개비 개개비.....
 가냘픈 갈대 숲에 매달려 목 놓아 애처롭게 노래하는 개개비입니다. 노랫소리는 종달새나 피꼬리처럼 아름답지는 않지만 초여름부터 포천III에서는 개개비들의 합창대회가 열립니다.

몸집은 작아도 누가누가 잘하나 하며 노래하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개구리가 우는 소리처럼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갈대밭 근처에만 가면 쉽게 개개비를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하천에 나가보면 어느새 인기척을 느끼고 갈대밭 깊숙이 숨어버려 개개비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07. 5. 18 포천천 하승우리에서 촬영

개개비는 휘파람새과의 조류로 우리나라에는 개개비사촌, 섬개개비, 쇠개개비, 쥐발귀개개비 등 23종이 도래하는데, 매년 5월 경이면 전국적으로 찾아와 갈대밭에서 번식을 합니다.

이들의 동지는 커피잔 크기로 갈대 잎을 엮어서 갈대줄기 사이에 매달아 놓은 듯 만들어 놓고 새끼를 키웁니다.

개개비의 포란(捕卵)장면을 사진에 담고 싶어 포천III 갈대숲에 들어가 매복하기로 결심하고 위장텐트를 설치한 후 생수2병을 들고 들어가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야속한 개개비는 건너편 뚝방 근처 갈대 숲에서 개개비... 하고 울어댈 뿐 제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모기들만 저의 매복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위장텐트가 개개비 어미에게 노출된 것 같더군요. 포란중인 새둥지를 관찰 할 때에는 30분 넘게 어미새가 동지 근처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매복을 포기하고 신속하게 동지 앞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어미새가 제때에 알을 품어주지 않으면 알의 온도가 맞지 않아 부화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화 후에도 동지가 위협을 느끼면 어미새가 동지를 포기하여 유충(育雛)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동지에서 철수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쌍안경으로 관찰해 보니 다행히도 어미새가 동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포란중인 모습

은 다음기회에 촬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개비와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5월경이었습니다.

아직 짝짓기 전이라 갈대줄기 윗 부분에 매달려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한 사람의 노래를 불러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개개비를 쉽게 사진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개개비가 찾아와서 한여름의 것을 확인하고, 포란중인 모습

포천천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장 이상일 017-705-0994



“전국 꽃배달 서비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꽃마음은 사랑입니다!



꽃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 생화
- 근조화환
- 사랑의 꽃바구니
- 동·서양란



꽃배달서비스
☎ 031) 534-9968

대표 김형도 / 포천시 신읍7동 175-8 / H.P 010-7170-6589